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정선화¹ · 박성희²

중앙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¹,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²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eong, Sun Hwa¹ · Park, Sung Hee²

¹Health Promotion Center,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²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Three hundred forty-five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by convenient sampling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1. **Results:**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moderate stress level. The most severe stressors were adjustment to school and clinical practice. Also, they experienced more than moderate level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The most satisfiable factors were clinical practice circumstance and practice hours. The sophomore had more severe stress and depression and had lowe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an the junior. Satisfying with major in nursing as well as clinical practic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ss and depression. **Conclusion:** Based on this results, we need to develop programs for increasing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and major in nursing. The program will enhance adaptation ability to clinical practice.

Key Words: Nursing students, Stress, Depress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 임상실습교육은 학생이 임상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를 대면하여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 지식과 간호술기를 실무에 적용하는 학습과정이며,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요소이다(Nelwati, McKenna, & Plummer, 2013).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 지식과 실무를 통합하게 되고, 간호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효율적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을 습득하게 되므로(Lofmark & Wikblad, 2001;

Nelwati et al., 2013) 실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실습교육을 위해 간호평가원에서는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당국과 교수 및 임상실습지도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Ji, 201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증가하므로(Cha, 2013) 임상실습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다.

간호대학생은 학사과정 동안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학생신분으로 실무환경을 접하게 됨으로써 타 대학생에

주요어: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우울, 임상실습, 만족도

Corresponding author: Park, S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558 Daehang-no, Kunsan 573-701, Korea.
Tel: +82-63-469-1996, Fax: +82-63-469-1991, E-mail: shpark@kunsan.ac.kr

투고일: 2013년 4월 20일 / **수정일:** 2013년 5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5일

비해 스트레스(Kim, 2006; Lee, 2003; Park, Hwang, & Choi, 2003; Park, 2009)와 우울 수준이 높으며(Eo, 2010; Lee, 2011; Park & Jang, 2010), 이러한 정신적 불건강 상태는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실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Evans & Kelly, 2004; Ha, Oh, Song, & Kang, 2004; Park & Ha, 2003; Zyga, 20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이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학생의 정신적 건강증진은 물론 임상실습 만족도(Konstantinos & Christina, 2008; Moreira & Furegato, 2013; Park, 2009)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 향상(Gibbons, Dempster, & Moutray, 2011; Ji, 2013)을 통해 임상실습 적응 능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과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Moreira & Furegato, 2013; Oskouei & Kahkeshan, 2013),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은 우울에 빠질 위험성이 높으며(Moreira & Furegato, 2013),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수행능력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이들의 관계 및 영향을 고찰한 경우는 Park과 Jang (2010)의 연구뿐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및 임상수행 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2010년에 일 지역의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이므로(Park & Jang, 2010) 연구의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과 대학을 확대하고, 우울의 문제가 주로 나타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Lee, 2011)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전문간호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적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간호전문대학과 충남 소재 B간호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며, 최소 12주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2, 3학년 간호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측정도구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Park (1997)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Park과 Jang (2010)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5인의 자문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Park과 Jang (2010)의 도구는 임상실습 4문항, 자기 자신 6문항, 학교생활 9문항, 교우 관계 5문항, 가정 6문항, 이성 교제 4문항의 총 3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Jang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 우울 측정도구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 (1978)의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도구(Rhee et al., 1995)를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기술되어 있는 4개의 진술문 중 자신에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을 하는 자가 보고형 도구이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 점수가 부과되고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합산한 총점의 범위는 0~63점까지이다. 총점이 0~9점이면 정상, 10~15점이면 약한 우울, 16~23점이면 중등도 우울, 24~63점이면 심한 우울을 의미한다. Rhee 등 (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3)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 (2006)의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를 Park과 Jang (2010)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5인의 자문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Park과 Jang (2010)의 도구는 실습 내용 6문항, 실습 지도 8문항, 실습 환경 4문항, 실습 시간 4문항, 실습 평가 5문항, 대인 관계 4문항의 총 31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Jang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자료수집

201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먼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에게 수집하였다.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그 후 개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대한 설명 시 연구참여 여부가 학생평가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자료는 단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version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20,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319명이 결정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3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부실 기재한 자료를 제외한 34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우울, 임상실습 만족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4세 이하가 309명(8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339명(98.3%)으로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168명(48.7%)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이 118명(34.2%), 3학년이 227명(65.8%)으로 나타났고 간호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324명(93.9%), 불만족이 21명(6.1%)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236명(68.4%)은 정상 그룹이었으며, 70명(20.3%)은 경한 우울 그룹, 31명(9.0%)은 중등도 우울 그룹이었고 8명(2.3%)은 심한 우울 그룹에 속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5)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 24	309 (89.6)
	≥ 25	36 (10.4)
Marital status	Single	339 (98.3)
	Married	6 (1.7)
Religion	Yes	177 (51.3)
	No	168 (48.7)
School year	Sophomore	118 (34.2)
	Junior	227 (65.8)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	324 (93.9)
	Unsatisfied	21 (6.1)
Depression group	No depression	236 (68.4)
	Mild depression	70 (20.3)
	Moderate depression	31 (9.0)
	Severe depression	8 (2.3)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87±0.47로 나타나 중등도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영역 중에서는 학교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3.61

± 0.58)와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3.50 ± 0.56)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의 총점 평균은 7.61 ± 6.63 으로 우울이 없는 정상 그룹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2 ± 0.40 으로 나타나 중등도 수준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만족도 영역 중에서는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3.44 ± 0.59)와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3.32 ± 0.58)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2.99 ± 0.6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연령에 의한 차이는 우

Table 4.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345)

Variables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 (p)	r (p)
Depression	.59 (<.001)	-.24 (<.001)
Stress	1.00	-.30 (<.001)

울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에서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4세 이하가 25세 이상 간호대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2.86, p=.005$). 학년에 따른 차이는 우울,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전 영역에서 나타났다.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우울($t=2.01, p=.045$)과 스트레스($t=2.19, p=.029$)가 높게 나타났고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는 더 높게 나타났다($t=-2.31, p=.021$). 종교에 의한 차이는 우울 영역에서만 나타났고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13, p=.034$).

간호전공에 대해 만족한 군에서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습 만족도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스트레스($t=-3.47, p=.001$), 우울($t=-2.54, p=.019$)은 낮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t=2.47, p=.014$).

4.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양적 상관관계($r=.59, p<.001$)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임상실습만족도($r=-.24, p<.001$),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r=-.30, p<.0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345)

Variables	Items	M±SD	Min	Max
Stress				
Clinical practice	4	3.50±0.56	1.75	5.00
Self	6	2.99±0.76	1.00	5.00
Adjustment to school	9	3.61±0.58	1.44	5.00
Friend relationship	5	2.30±0.72	1.00	4.80
Family	6	1.95±0.67	1.00	4.00
Boyfriend	4	2.51±0.83	1.00	5.00
Total	34	2.87±0.47	1.29	4.24
Depression	21	7.61±6.63	0.00	42.0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content	6	3.17±0.47	1.17	4.67
Practice guidance	8	3.18±0.50	1.38	4.63
Practice circumstance	4	3.44±0.59	1.75	5.00
Practice hours	4	3.31±0.53	1.50	4.75
Practice evaluation	5	2.99±0.61	1.00	4.80
Interpersonal relationship	4	3.32±0.58	1.00	5.00
Total	31	3.22±0.40	1.52	4.68

Table 3.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45)

Variables	Categories	Stress		Depress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SD	t (p)	M±SD	t (p)	M±SD	t (p)
Age (year)	≤ 24	2.83±0.47	2.86	7.68±6.68	0.75	3.22±0.38	-1.74
	≥ 25	2.60±0.47	(.005)	6.81±5.93	(.455)	3.36±0.48	(.090)
Marital status	Single	2.62±0.33	-1.35	7.68±6.63	-1.41	3.45±0.49	1.48
	Married	2.88±0.47	(.179)	3.83±5.31	(.159)	3.21±0.39	(.140)
School year	Sophomore	2.95±0.51	2.19	8.60±7.08	2.01	3.15±0.41	-2.31
	Junior	2.83±0.44	(.029)	7.10±6.33	(.045)	3.25±0.39	(.021)
Religion	Yes	2.79±0.46	-0.80	6.85±5.80	-2.13	3.25±0.38	0.76
	No	2.83±0.49	(.423)	8.36±7.29	(.034)	3.22±0.42	(.449)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	2.79±0.46	-3.47	7.21±6.03	-2.54	3.25±0.39	2.47
	Unsatisfied	3.15±0.52	(.001)	13.43±11.11	(.019)	3.03±0.37	(.014)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87점으로 중등도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Moreira와 Furegato (2013)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간호학생들이 중등도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한 Park과 Jang (2010)의 2.82점과는 유사하였으며, Han과 Yu (2012), Park (2009)의 3.43점, Lee (2013)의 3.35점, Kim과 Lee (2005)의 3.33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Lee (2003)의 2.11점, Kim (2006)의 2.50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한 결과, 과거에 비해 최근 선행연구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점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신설 간호학과와 간호대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해 좋은 실습환경의 임상실습 병원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병원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실습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임상실습 경험이 더 많은 3학년 학생보다 임상실습 경험이 부족한 2학년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에서도 확인된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임상실습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 하부 영역별 수준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과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Park과 Jang (2010)의 연구와도 유사하여 간호대학생은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Kim과 Lee (2005)의 연구에서도 실습업무 부담 및 실습교육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학과 성적과 연관이

있고 학과성적은 졸업 후에 병원 취업과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게 되므로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에서도 특히,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은 우울의 총점으로 분석한 결과는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Park과 Jang (2010)의 연구와 Lee (2011)의 연구에서는 경한 우울, Kim (2011)의 연구에서는 중등도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고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우울의 그룹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학생은 68.4%, 경한 우울 20.3%, 중등도 및 심한 우울을 경험한 학생도 11.3% 정도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울 그룹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 우울 그룹을 비교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Moreira와 Furegato (2013)의 연구에서는 73.1%의 학생이 우울을 경험하지 않았고, 경한 우울 15.4%, 중등도 및 심한 우울 11.5%로 나타났고, Oskouei와 Kahkeshan (2013)의 연구에서도 정상 그룹 79.4%, 경한 우울 10.7%, 중등도 및 심한 우울 9.9%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이 우울을 경험하지 않거나 경한 우울을 경험하고 있어 전체적인 우울의 총점은 통계적으로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20%에서 3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우울은 전체 그룹이 어느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상과 우울 그룹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향후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며,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을 위

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은 중등도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한 Park과 Jang (2010)의 2.81, Kim과 Kim (2011)의 3.10보다는 높고, Cha (2013)의 3.29보다는 낮았다. 이는 실습 만족도의 하부 영역을 살펴본 결과, 실습 내용과 실습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임상실습 내용과 평가 방법 및 기준, 공정성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이 선행연구에 비해 실습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요인으로 생각된다. 향후 임상실습 내용과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는데(Park & Jang, 2010), 2학년과 3학년 학생 간의 우울,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한 Lee (2013)의 연구에서도 4학년 학생이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ee (2003)와 Oskouei와 Kahkeshan (2013)의 연구에서는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을 2년 동안 수행해온 3학년 학생보다 임상실습을 처음으로 경험한 2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학년 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으로 간호대상자와 병원의료진들과의 관계 형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께 형성해 가는 과정 동안에 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는 군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군 간에 차이를 두고 개별화된 임상실습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우울은 덜 경험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공 만족도가 향후 임상실습 적응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간호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4세 이하 학생들이 25세 이상 학생들보다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2013)의 연구에서도 일치되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즉,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변 지지체계의 부족 또는 미성숙한 사고체계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을 듯 하나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향후 학생들을 심층 면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할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학년보다 저학년일수록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은 더 높게 지각하고 실습 만족도는 더 저하되었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적응 및 만족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에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호대학생들의 실제 요구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함께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가 어리고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한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임상실습 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선행연구의 일개지역, 일개 대학에 국한된 연구에서 연구지역과 대상을 확대한 점과 반복 연구를 통한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한 점이다. 또한, 우울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시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총점 평균으로 평가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우울을 겪는 학생들이 20~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이 전혀 없는 정상그룹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울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때는 총점 평균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우울 그룹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

석하는 것도 필요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다른 대학생들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더 높고, 이로 인해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 저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 및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REFERENCES

- Beck, A. T. (1978).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Philadelphia: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 Cha, J. A. (2013). *Correlation between for nursing students i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Eo, Y. S. (2010). Effects of self-leadership program on mental health and ego-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 893-908.
- Evans, W., & Kelly, B. (2004). Pre-registration diploma student nurse stress and coping measures. *Nurse Education Today, 24*, 473-482. <http://dx.doi.org/10.1016/j.nedt.2004.05.004>
- Gibbons, C., Dempster, M., & Moutray, M. (2011).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7*, 621-632.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10.05495.x>
- Ha, E. H., Oh, K. J., Song, D. H., & Kang, J. H. (2004).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263-279.
- Han, S. H., & Yu, H. S. (2012). College women's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 disclosure in an a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 131-140.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131>
- Ji, E. M. (2013).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 Kim, C. Y. (2006). Self-differentiation,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 238-247.
- Kim, N. H., & Kim, K. W. (2011).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4), 41-51.
- Kim, S. L., & Lee, J. 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98-106.
- Kim, Y. H. (2011). Effects of depression, self esteem and ego identity on test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 2003-2013.
- Konstantinos, N., & Christina, O. (2008). Factors influencing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units: A research review. *Health Science Journal, 2*, 183-195.
- Lee, A. K. (2013).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e, H. K. (2003). A study on stress and coping method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586-593.
- Lee, I. S. (2011).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 2487-2500.
- Lee, J. D. (2006). *The study of preceptor-guided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ofmark, A., & Wikblad, K. (2001). Facilitating and obstructing factors for development of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A studen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4*, 43-50. <http://dx.doi.org/10.1046/j.1365-2648.2001.3411739.x>
- Moreira, D. P., & Furegato, A. R. F. (2013). Stress and depression among students of the last semester in two nursing courses. *Lati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21*, 155-162. <http://dx.doi.org/10.1590/S0104-11692013000700020>
- Nelwati, S., McKenna, L., & Plummer, V. (2013). Indonesian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stress in clinical learning: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3*(5), 56-65. <http://dx.doi.org/10.5430/jnep.v3n5p56>
- Oskouei, N. N., & Kahkeshan, P. (2013). A study on depression among paramedical students and the contributing factors in 2010-2011. *Journal of Paramedical Sciences, 4*, 99-105.
- Park, B. S. (2009).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s by sex role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Park, H. S. (1997). A study on stressor, cognitive degree and coping method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atholic Sangji College, 27*, 1-43.
- Park, H. J., & Jang, I. S.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 14-23.
- Park, J. W., & Ha, N. S. (2003).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27-35.

- Park, K. S., Hwang, Y. Y., & Choi, E. H. (2003). The study of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the intensive care uni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5, 373-382.
- Rhee, M. K., Lee, Y. H., Jung, H. Y., Choi, J. H., Kim, S. H., Kim, Y. K., et al. (1995). A standardization study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II-Korean version (K-BDI): Validity.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4(1), 96-104.
- Zyga, S. (2013). Stress in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6(1), 1-2.